



개혁신학산책 | 김 영 석 | 대구 영광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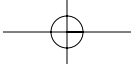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종교다원주의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제10차 총회 장소로 부산을 확정하고 난 후부터,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적인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준비의 주도권을 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와 예장 통합이 갈등을 일으켰으나 최근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들은 합의와 더불어 신학선언문을 준비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교회협의회 내에서 그동안 종교다원주의 비판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음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약화시켰다는 공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¹⁾ 잘못을 시인하면서 되돌아오는 회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인정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답습 할런지 기다려진다.

또 최근 한국개혁신학회(회장:심창섭)는 지난 6월에 ‘WCC의 탄생과 역사’라는 주제로 열린 정기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WCC가 공식적으로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및 종교의 연합과 일치운동을 하면서 혼합주의 다원주의에 빠졌다.”²⁾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다원주의 혼합주의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 『기독신문』(제1829호)(2011년 7월 27일), 5.

2) 『기독신문』(제1827호)(2011년 7월 13일), 19.



따라서, 직접적인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있고³⁾ 또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고는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를 유치했고, 세계교회협의회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세계교회협의회가 어디까지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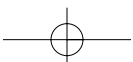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사의 살펴보고, 그 역사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의 핵심적인 내용인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식 홈페이지⁴⁾에서 천명하고 인준하는 글들을 살펴 볼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문서들 중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 관련이 있고 최근 발표한 논문, 발제문, 기도문 등을 발췌하고 검토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주장이나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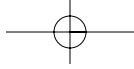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사의

한국기독교협의회는 한국교회의 연합을 희망했던 과거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인 장감연합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최초로 교회연합사업을 위한 단체로서 1924년 조선 예수교연합공의회를 조직하여 세계교회와의 관계를 맺게 하였다.

3) 세계교회협의회와 관련된 논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의환, “비판적 입장에서 본 WCC”, 『기독교사상』 제12권 제6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56-62. 박상중, “WCC의 기구와 그 기능”, 『기독교사상』 제12권 제6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63-71. 김용복, 강원용, 강문규, “한국교회와 WCC”, 『기독교사상』 제27권 제1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43-60. 문병호, “WCC바로 알기 : “비(非)성경적, 반(反)교리적”: WCC의 가시적 교회일치론 비판”, 『역사신학 논총』 제19권(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40-62. 이은선, “WCC바로 알기: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탄생과 역사”, 『역사신학 논총』 제19권(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121-161.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 1990년의 바르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 제19권(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162-185. 등이 있다.

4) <http://www.kn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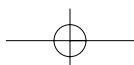
하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 기독교로 포함되면서 사라졌다. 조국의 해방이 후 교회 본연의 의무가 부활되면서 1946년 9월 3일에 한국기독교연합회로 개명되었고, 1970년에 교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한국기독교협의회로 다시 개칭하게 되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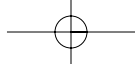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WMC)의 계속 위원회가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MC)를 거치면서 여러 나라별로 NCC를 구성케 했다. 모트(John Mott)가 1922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그 해에 중국에 NCC가 창설되고, 그 이듬해인 1923년에는 일본 NCC가 탄생하였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장감연합위원회에서 선출된 전문위원들이 1923년 3월에 장감연합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를 조직키로 가결하였다. 이것이 KNCC(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의 기원이었다. 이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는 11개 기독교 단체들, 즉 조선 예수교 장로회, 네 선교부, 남감리회, 감리회 두 선교회, 영국 성공회 및 조선 기독교 청년회로 구성되었다. 창립총회는 1924년 새문안 교회에서 열림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51년 국회의원 22명이 세계교회협의회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를 들어 용공단체로 비난을 받아 일대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1953년 기독교장로회도 가입하고,⁶⁾ 1954년 8월 에반스톤 세계교회협의회 2차 총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1961년 3월 인도 뉴델리 3차 총회에서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 혼란을 견디고 명실상부한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5)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서울:개혁주의신학사, 2010), 293-294.

6) 이때 기독교장로회는 가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본 총회는 전 세계 장로교회의 주류를 따라 세계교회협의회에 협조하여 에큐메니칼 운동을 적극 유지하여 국내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자유협력하여 기타 일반 협동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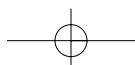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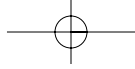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초대 임영빈 총무 이후 현재 권오성 총무에 이르기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왔고, 세계교회협의회가 해방신학을 받아들일 때도 함께 받아들여 사회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노동조합운동과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유신반대, 여성안수 등과 같은 사회운동과 맥을 같이 했다.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되기도 한 현재의 권오성 총무의 노력으로 이번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부산에 유치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인권과 노동, 인도적 대북 지원과 교류 협력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던 1996년 순복음교회로 대표되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가입함으로써 그 세를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가입을 두고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운동 총부 허버트 반 백이 평가하기를 “세계교회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뎌야 할 때”라며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선교라는 공동의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 믿음의 동역자로서 세계오순절 교단의 중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하성 교단의 성령운동 등 경험을 나누고 1998년 12월 짐바브웨의 하레라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8차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논의하길 원한다”고 했다.⁷⁾ 이번 부산 총회를 준비위원회 구성 문제로 체면을 구기기는 했다.⁸⁾

국제선교협의회가 각 나라별로 NCC 창립을 종용함으로써 구성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KNCC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연합 공의회이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가 해방신학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부산에 유치한 일등공신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다. 이렇듯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우리만큼 깊은 관계에 있다.

7)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 300.

8)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통합측 김삼환목사, 그리고 집행위원장에 같은 통합측 박성원목사를 선임하려다가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최근 분란이 타결되면서, 겨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 김영주 총무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박성원목사의 거취문제가 남아있다.





결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와 관계함으로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중심에서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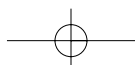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2. 종교다원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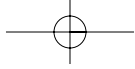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 신학적인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책의 출판으로 시작되었다. 이 변화는 기독교가 구원받는 유일한 종교라는 신뢰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최선의 종교라는 우월의식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타협적 대화를 통해 공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책은 존 히크(John Hick)과 폴 나이트(Paul Knitter)에 의해 편집된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이다.⁹⁾ 이 책의 출판으로 시작된 새로운 신학적 사고방식은 순식간에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반면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사인이었다.

이렇듯, 21세기를 맞은 교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이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어느 정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존 히크은 그의 책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한 기독교 신자, 유대교 신자, 회교도, 시크교도, 힌두교인, 불교도, 혹은 마르크스주의자, 모택동주의자라는 사실은 거의 항상 그들이 세계의 어느 부분에서 출생하게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신뢰할 만한 종교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이

9) John Hick & Paul Knitter(eds.),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Marknoll, NY: Orbis, 1987). 이신열, “종교다원주의의 교회론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 『진리와 학문의 세계』 제 9권(2003), 106에서 재인용.





분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신이 지역적인 주관자가 아닌 우주적인 주관자(universal sovereignty)이며 한 인종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점을 깨달아 이상의 사실과 관련시킴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전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기독교인과 그들의 구약 시대의 영적 조상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 남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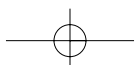
종교다원주의적인 종교관을 비유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예를 들면, “등산로 비유”에 따르면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하듯 기독교나 타종교는 정상에 이르는 여러 등산로 중의 하나일 뿐이다. ‘길벗 비유’에 따르면 세계의 종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향해 함께 가는 도상의 존재이며 길벗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손바닥 비유’는 다섯 손가락이 한 손바닥에서 나왔듯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뻗어 나온 손가락일 뿐이라고 비유한다.”¹¹⁾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다원주의를 “기독교의 고유성이나 독특성을 포기하고 모든 종교는 동일한 구원과 진리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에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이다. 이러한 비판은 종교다원주의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감리교 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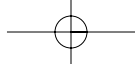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세계교회협의회와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고 이번 부산총회를 유치하는데 크게

10) 존 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근홍 역(서울: 전망사, 1993), 192.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 1990년의 바르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제19집(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169에서 재인용.

11) 이상규, “한국 기독교의 타종교에 대한 이해”, 『진리와 학문의 세계』제11권(2004), 100.

12) 감리교 이등주교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을 떠난 신학이기에 기독교 신학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등주,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신학”, 『목회와 신학』26호(1991, 8), 68-87. 이상규, “한국 기독교의 타종교에 대한 이해”, 10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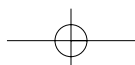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기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문헌, 글, 기도문 등을 통해 앞서 살펴본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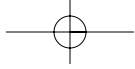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3.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주제제안을 위한 조언”¹³⁾

2010년 1월 25일 제 1차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2013년 WCC 10차 총회를 위해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이번에 그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들은 삼위일체론적인 주제로의 전향을 주장하고 1~9차 총회의 주제를 개괄하면서, 이전까지는 지나치게 삼위하나님을 각각 따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으로 주제를 공식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번 부산 총회의 주제를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 이끌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그들은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실체나 주체로 이해하는 단일군주론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 비세계화되었고, 세계는 더욱 세속화됨으로써, 기독교 신앙은 세계 없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하나님과 세상이 격리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리된 하나님과 세상을 잇기 위하여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있다고 믿는다. 삼위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적 사귄과 일치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모델이며 비전이 되는 것이다.

이는 위르겐 몰트만이 말하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적인 접근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극소화하게 하는 것으로 개혁주의의 내재적 삼위일체론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 주장은 보충자료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생명신학은 하나님

13) <http://www.kncc.or.kr/> 2011년 7월 29일 검색.





의 본질을 관계와 친교와 사귄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떠나계심(초월성)과 더불어 함께하심(내재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인류를 불러내고 함께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온 생명 안에 영으로서 거주하신다.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주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집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몰트만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을 도외시켰다. 이 주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검증될 수도 없고,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느낌보다 하나의 현상임이 두드러진다. 그들의 교회관은 사회변혁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 사회 변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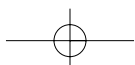
그리고 이 제안에서 이들은 1990년 바르 선언서(Baar Statement)¹⁴⁾에 근거하여 기독교 입장에서 모든 타 종교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고 보며, 성령께서도 모든 타 종교들 속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는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의 다양성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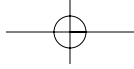
4.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¹⁵⁾

기도의 대상을 말하면서, “오, 하느님, 부처님”으로 부르고 있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만으로도 충분히 이들은 종교다원주의인 것이다. 무력하고 한없이 작은 당신이 한 증생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온 우주만물에 깊이

14) 바르 선언문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황대우 교수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 1990년의 바르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제19권(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162-185.

15) <http://www.kncc.or.kr/> 2009년 6월 28일 검색(2008년 5월 21일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 서울복음교회 교육목사 구미정 작성).





하느님의 흔적”이 있음을 말하고 연이어,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나온 사람의 한 생에 온 생명의 계통발생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한다.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이들은 그 기도하는 대상을 다시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확대해서 나열한다. 물론 이들은 4대 종단이 모여 공동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기에 각 종단의 신들을 나열한 것이다. 간구의 소망을 말하기를 “부디 이땅에서 죽임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결론은 “나무아미타불, 아멘”이다.

기독교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종교가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가 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동일한 길이어서 기독교는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 종교다원주의이다.¹⁶⁾

5. “2011년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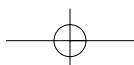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에게 자유와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제28회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에 있는 설교이다. 피조물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피조물의 고난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 성격이다. 둘째, 피조물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고맙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셋째, 환경재앙이 우리의 탐욕에 의한 것이다. 넷째, 피조세계와 한 몸 공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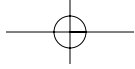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칼빈은 대속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겨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한다.¹⁸⁾

16) 서철원, “종교다원주의와 구속신앙”, 『신학지남』(서울: 신학지남사, 1997), 132.

17) 2011년 6월 2에 작성된 2011년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 <http://www.kncc.or.kr/> 2011년 7월 29일 검색.

18) 『기독교 강요』, 1.17.4.





그런데 이 설교문에서는 피조물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반열로 올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또한 몰트만의 견해로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음으로 개인구원의 의미는 상실되고, 사회구원, 우주적 구원으로 이해된다.

이 공동 설교문은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논리로 “환경운동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운동”으로 격상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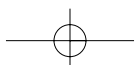
칼빈은 참 교회의 표지를 말하면서, “말씀과 성례”를 전한다. 그러면서 거짓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을 청중치 않고 인간적인 계승만을 강조”하는 교회임을 피력한다.¹⁹⁾ 계속해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짐”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²⁰⁾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교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자연을 통한 방법이 있음을 말함으로써 성경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작성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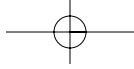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 구성에서부터 해방신학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나 노동조합과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부산에 유치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결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19) 『기독교 강요』, 3.2.3.

20) 『기독교 강요』,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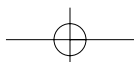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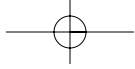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활동으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제를 제안하는 것과 생명의 강 살리기를 위한 여성 공동 기도문, 그리고 환경주일 예배 자료집을 보았다. 이는 20세기 후반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한국에도 몇 차례 왔던 몰트만의 신학이 그대로 녹아 있음을 살펴보았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이 깃들어 있고, 그렇기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결국 자연을 살리고 보호하는 모든 일련의 사회활동이 그 안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구원은 상실되고 사회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대정부 활동과 같은 노동운동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기도문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동등포괄주의에 속한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적 포괄주의”이다.²¹⁾ 결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동등 포괄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종교다원주의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에서의 성찰과 같이 종교다원주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선회하여 종교적 포괄주의를 포기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견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서 타종교인들과의 대화는 고무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대화해야 할 것이다.

21)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 1990년의 바르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169.





참고문헌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박영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과 사회선교』.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0.
- 존 히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이근홍 역. 서울: 전망사, 1993.
- John Hick & Paul Knitter(eds.). *The Myth of Christian Uniqueness: Toward a Pluralistic Theology of Religion*. Marknoll, NY: Orbis, 1987.
- 김용복, 강원용, 강문규. “한국교회와 WCC”. 『기독교사상』제27권 제1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43-60.
- 김의환. “비판적 입장에서 본 WCC”. 『기독교사상』제12권 제6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56-62.
- 문병호. “WCC바로 알기 : “비(非)성경적, 반(反)교리적”: WCC의 가시적 교회일치론 비판”. 『역사신학 논총』 제19권(2010): 40-62.
- 박상중. “WCC의 기구와 그 기능”. 『기독교사상』제12권 제6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63-71.
- 서철원. “종교다원주의와 구속신앙”. 『신학지남』제64권1집(서울: 신학지남사, 1997): 131-157.
- 이동주.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신학”. 『목회와 신학』26호(서울: 두란노, 1991, 8): 68-87.
- 이상규. “한국 기독교의 타종교에 대한 이해”. 『진리와 학문의 세계』제11권(2004): 87-111.
- 이신열. “종교다원주의의 교회론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 『진리와 학문의 세계』제9권(2003): 105-120.
- 이은선. “WCC바로 알기 :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탄생과 역사”. 『역사신학 논총』제19권(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121-161.
- 황대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종교다원주의: 1990년의 바르 선언문(Baar Statement)을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제19권(서울: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10): 162-185.
- 『기독신문』제1827호(2011년 7월 13일).
- 『기독신문』제1829호(2011년 7월 27일).
- <http://www.kncc.or.kr>

